

과일·채소값 급등... 올 설 차례상 비용 '역대 최대'

전통시장 30만원·대형마트 40만원 이상기후에 배·무 등 가격 2배 올라 정부, 16대 성수품 1.5배 확대 공급 "물가대책 적극 활용 비용 절감을"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채소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내놓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이 물가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전문가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40만951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6.7%·7.2% 상승한 가격이다. 누적된 고물가 탓에 설 차례상 비용이 매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해 과일·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설 차례상 채갈물가는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전망됐다.

과일 중에서는 특히 배가 차례상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2024년 1월19일)에는 1만3500원이었던 배 3개 가격은 지난 8일 2만7000원으로 2배 상승했다. 실제 과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설 명절을 앞두고 과일·채소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대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천후로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 가격 상승의 주범이 사과였다면 올해는 배다. 전년 대비 비교적 작황을 회복한 사과와 달리, 배는 지난해 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일소, 낙과 등의 피해가 커 생산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로 저장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기준 배 가격 역시 1만7970원에서 3만4960원으로 94.55% 상승했다.

채소류도 최근 들이닥친 강력한 한파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먼저 전통시장 기준 무 1개 가격은 지난해(2024년 1월19일) 2000원에서 지난 8일 4000원으로 두배 상승했고, 배추 1포기는 4000원에서 7500원으로 75% 급등했다. 대형마트 역시 같은 기간 무 1개는 2440원에서 4500원으로 84.43%, 배추 1포기는 3890원에서 6800원으로 74.81% 상승했다. 무와 배추는 지난해 여름 생육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김장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기 출하가 많이 이뤄진 상황 속에서 한파로 인

한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변동이 없으나, 수입 물량과 단가 영향을 받는 수입산이 많아 최근 급등한 환율에 추후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축산물류는 고물가와 최근 사회 분위기로 소비 활동이 위축돼 올해 큰 변동이 없었으나, 유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사료값, 축사 관리 및 유통비 등 생산 비용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닭고기 역시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공급 상황에 맞춰 가격 추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실제 축산물의 경우 소고기·돼지고기·달걀 가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제수용 닭고기(1.5kg) 값은 전통시장 기준 지난해 1월 8000원에서 지난 8일 9000원으로 12.5% 올랐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제수용 닭고기(1.5kg) 가격은 9890원에서 1만1980원으로 21.13% 상승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에서 돼지고기(육전용 앞다리살, 600g), 달걀 10개 등의 가격이 각각 6.33%, 9.77% 올랐다.

다만 물가정보가 조사한 설 차례상 비용은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설 물가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으로, 물가대책 등을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차례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설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평소보다 1.5

배 늘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생산자·유통업체 할인(20%)을 포함해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수산물은 정부 할인지원(20%)과 유통업체 할인(최대 30%)을 더해 최대 50% 할인가에 살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농축산물 혹은 수산물을 각각 3만4000~6만7000원 구매하면 1만원 상품권을,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을 각각 환급받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올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오는 15일과 20일에 정부·유통업체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사용까지 반영한 차례상 장보기 비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물가정보는 "평년보다 빠른 설과 최근 환파 영향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는 품목이 있다"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저장 기간이 비교적 긴 품목은 미리, 변동이 잦은 채소류와 같은 품목은 기후 변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발표 가격은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이 미반영된 가격이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세관, 설 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설 명절 연휴기간 기업들의 수출입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13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공휴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이 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은 농·수·축산물 등 설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한다. 또 수출화물 선적의무 기간

(1개월)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를 막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한다.

광주세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14일부터 2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환급업무 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 공개

현대자동차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자동차 튜닝 박람회 '2025 도쿄 오토살롱'에서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을 최초 공개하고 올 상반기 국내·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은 현대차의 고성능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N에 주행 성능을 강화하는 N 퍼포먼스 파츠가 장착된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튜닝 파츠의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는 스페셜 모델이다.

현대차는 모터스포츠 드라이버가 가진 열정과 전문성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일본 유명 레이서 '츠치야 케이치'와 협업했다. DK는 츠치야 케이치의 별명 '드립트 킹(Drift King)'에서 이름을 따왔다.

현대차는 츠치야 케이치와 함께 일본 현지 서킷 및 와인딩 코스에서 여러 제조사의 튜닝 파츠를 테스트하며 최적의 파츠 패키지를 개발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 N DK 에디션에 △두랄루민을 정밀 가공해 제작한 6P 모노블록 브레이크 캘리퍼 △기존 아이오닉 5 N 모델 대비 면적을 54% 넓히고 마찰 계수를 강화한 전용 브레이크 패드 △휠과 타이어 안착면에 특수한 틈이 가공 구조가 적용돼 고속 주행 중 마찰력을 강화한 21인치 경량 단조 휠 △차량 무게 중심을 낮추는 로워링 스프링 등 전용 부품을 장착해 주행 안정성과 제동 및 코너링 능력을 강화했다. 박소영 기자

제 1154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4 8 22 26 32 38	2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18억549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7479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5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한일고속, '완도~제주' 골드스텔라호 취항

오는 15일부터...2시간30분 소요 여객 948명·승용차 343대 수용

국내 최대 연안여객선 대표선사 ㈜한일고속은 내륙-제주간 최단 항로인 완도-제주항로에 오는 15일부터 모던프레스티지 대형카페리 골드스텔라호를 취항한다고 12일 밝혔다.

골드스텔라호는 오전 9시20분 완도를 출발해 2시간30분만에 제주에 도착하는 대형 선박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고급 시설을 자랑하며 제주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해 1일 왕복 운항할 예정이다.

한일고속은 골드스텔라호 완도항로 신규 취항을 기념해 왕복 예약 시 돌아오는 요일에 객실과 차량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한일고속 홈페이지 회원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골드



골드스텔라호. 한일고속 제공

스텔라호 왕복 예약을 하거나, 골드스텔라호와 실버클라우드호를 교차해 예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벤트는 4월30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일고속 홈페이지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제주 항로는 한일고속의 실버클라우드호가 일 2회 왕복하고 있으며, 내륙에서 제주까지 가는 가장 짧은 항로로 제주로 가는 이용객들의 선호가 높은 항로다. 특히 승용차를 타고 제주여행을 즐

기는 고객들의 이용이 많다. 골드스텔라호의 이번 취항으로 한일고속페리는 완도-제주 항로에서 새벽, 오전, 오후에 출발하는 일 3회 운항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지난 2020년 국내 두번째로 건조한 프리미엄 골드스텔라호는 여객 948명과 승용차 343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급 카페리로, 뛰어난 개방감과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고 다양한 여행 스타일에 맞춘 호텔급 객실을 제공한다. 프라이빗한 테라스에서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특실,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마루 객실, 4인 가족을 위한 2층 침대 객실, 나 홀로 여행객을 위한 캡슐 객실, 반려동물도 함께 누울 수 있는 펫룸 등 선택의 폭이 넓다. 또 바다가 보이는 소파 휴식공간, 전신 마사지와 발 마사지, 오락실, 키즈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최권범 기자

글로벌 냉동식품-담빛곡간, 농산물 가치 향상 '맞손'

담양 차수국 부가가치 증대

(주)글로벌 냉동식품과 농업회사법인 (주)담빛곡간은 최근 농업 분야에서의 혁신과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은 농업인의 소득 향상,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상품 연구 개발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냉동식품은 차수국임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비롯한 유통 노하우 등을 제

공하고, 담빛곡간은 차수국임 품질관리, 공급 체계 구축, 농업 관련 데이터 등 자원 공유를 힘쓴다.

담빛곡간 채경일 대표는 "차수국임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 구축은 농업계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며 "두 기업의 협력은 담양군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냉동식품 장준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뢰와 양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며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농업회사법인 담빛곡간은 차수국임을 기반으로 한 작목반으로, 품질 관리와 공급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또 (주)글로벌 냉동식품은 중국과 베트남에 100% 독자 투자한 생산법인을 운영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식자재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